

2026년 9월 16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고금리 부담, AI 투자와 신용시장의 연결고리

9월 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던 금융시장의 기대가 최근 인상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8월 미국 CPI가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높인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까지 이어지면서 물가 재상승 우려가 확대된 영향이다. 이에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견조한 경기와 높은 물가,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공급 부담에 따른 기간 프리미엄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미국 장기금리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금리 상승이 곧바로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금리의 절대 수준보다 고금리 부담이 실물경제와 신용시장으로 전이되는지가 더 중요했다. 2006년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섰음에도 기업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증시는 주로 밸류에이션 조정에만 그쳤던 반면, 2007년에는 높은 금리가 주택시장 위축과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으로 확산되면서 증시 급락으로 연결됐다. 향후에도 고금리가 기업이익과 자금조달 여건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는 미국 경기와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해 온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AI 투자는 높은 현금창출력을 보유한 하이퍼스케일러가 주도하고 있어 재무적 기반은 비교적 양호하다. 다만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금 활용도 확대되고 있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은 점차 커질 수 있다. 자본비용 상승에도 현재의 투자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AI 투자 사이클의 핵심 변수다.

또한 공급자 금융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다시 GPU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로 유입되는 순환금융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 간 자금과 신용의 연계성이 높아질수록 특정 기업의 수익성 악화나 신용도 하락이 AI 생태계 내 다른 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커진다. 최근 일부 하이퍼스케일러의 CDS 프리미엄 상승도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자금조달 및 부채부담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신용위험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은 뚜렷하지 않다. 투자등급(IG)과 고수익(HY) 회사채 스프레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주요 상장 BDC 주가는 상반기 사모신용시장 불안 이후 반등했지만 일부 종목의 회복은 여전히 미진해, 고금리에 취약한 중·저신용 기업의 상환부담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모신용 부실이 확대되고 회사채 스프레드까지 동반 상승할 경우에는 위험이 보다 광범위하게 전이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은 금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그 부담이 AI 투자와 신용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회사채 스프레드가 안정적이고 하이퍼스케일러의 현금창출력도 높은 만큼 시스템 리스크가 본격화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하이퍼스케일러 CDS 프리미엄과 주요 상장 BDC 주가, 신용 스프레드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살펴 보면서 AI 내부의 신용위험이 사모신용을 거쳐 시장 전반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